



김정현 | 동화작가  
(4201708@hanmail.net)

### 하천과 동화

# 물방울 형제

깊고 깊은 산골짜기의 웅덩이에 티 없이 맑고 고운 물방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언제 넓은 세상에 나가 살 수 있을까?”

“그래, 나도 그게 소원이야. 여긴 답답해! 사방에 나무와 바위들뿐이고, 기껏 만나다니 산토끼나 다람쥐뿐이니 재미도 없어.”

물방울 형제는 넓고 볼 것이 많이 모여 산다는 사람 사는 세상을 동경했습니다. 거기에는 또 자기와 같은 물방울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것에 더 동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이 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토끼가 찾

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난 저 아래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나가 살기로 했어. 그곳은 향기로운 풀도 많고 맛있는 열매도 많다고 했다. 너희들도 거기 가서 안 살래? 거기엔 너희들과 같은 물방울도 많이 모여 산다고 했어. 큰 냇물을 이루고 큰 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야.”

그러잖아도 물방울 형제들은 넓은 세상에 나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넓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꿈을 여러 번 꾸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래. 사람들이 산다는 넓은 세상에 가서 살래.”



물방울 형제도 집을 나갔습니다.  
 산토끼와 물방울 형제는 구불구불한 여울길 따라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가재를 만났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니?”  
 “우린 다른 곳에 살려고 간다.”  
 산토끼가 말했습니다.  
 “다른 곳이라니?”  
 “사람 사는 넓은 세상에 가는 거야.”  
 “거기? 거기 무서운 곳이란 걸 모르는 모양이구나.”  
 물방울 형제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곳이라니?”  
 “언젠가 우리 친구들이 산 아래 넓은 개울가로 놀러갔다가 사람한테 잡혀 뜨거운 냄비 속에 들어가 죽기도 한 거야. 그 곳에는 아이들도 우릴 보면 잡아가곤 했었어.”  
 산토끼는 그 말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그란 눈을 하고 가재를 쳐다보며 산토끼는 물었습니다.

“호랑이만큼 무서운 사람인가?”  
 “그건 모르겠어. 노루 얘기로는 사람 사는 곳에 가면 무서운 사냥개가 있어 혼이 난다 했어. 사람들은 사냥개를 시켜 산에 사는 짐승을 잡아가지도 한다구 했어.”  
 “그렇다면 사냥개란 호랑이만큼 무섭겠네.”  
 산토끼는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방울 형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들이었습니다. 담담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방울 형제가 담담한 얼굴 표정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세고 무서운 게 물이라 했습니다. 물한테 이기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물론 호랑이도 물 앞에서 겁난다고 했습니다.  
 “사냥개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면 큰 강을 이룬 물이 있다는 데 그 물이 우리와 같은 물방울이 모인 것이고 하면 그 물이 우릴 도와줄 거야. 물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무섭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겁낼 것 뭐 있니?”  
 물방울 형제의 말에 산토끼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그레진 눈이 가늘어지며 부드러워지는 얼굴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재는 말했습니다.  
 “난 내가 난 곳에서 살 거야.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낯선 곳에 가 살아?”  
 그러나 물방울 형제는 산토끼를 재촉하여 떠났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사람 사는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들판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넓은 들판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는지 파릇파릇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물방울 형제는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산토끼도 그러했습니다.  
 여울길도 넓어졌습니다. 길도 평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내다보이는 골짜기 입구에는 열목어

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열목어들은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한가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말을 걸어 왔습니다.

“너희들이 사람들 사는 세상에 가는구나.”

“응”

물방울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길 가 본 적이 있니?”

“아냐, 처음이야.”

“나는 한번 갔다가 숨이 막혀 죽을 뻔했어!”

물방울 형제는 열목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매우 의아해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탁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물이 많았어. 목장이란 데서 소, 돼지들이 싼 배설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강과 내가 더러운가 하면 공장이란 게 있어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독한 폐수가 강과 내를 심하게 오염시켜 물이 죽어가기도 했어. 논과 밭이 있는 데는 농약이란 것에 오염되어 있었어. 너희가 만약 그런 곳에 갔다가는 당장 오염되어 썩은 물이 될 거야. 그리고 죽을 것이야.”

‘우리도 죽는다...’

물방울 형제는 할아버지의 말과 다르게 이 세상에는 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물을 썩게 한다면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목어는 또 말을 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런 것에 오염되어 여기에 온다면 우리 열목어들은 물론 다른 물고기 친구들도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어.”

물방울 형제는 가는 게 정말 겁이 났습니다.

산토끼가 열목어를 보고 한마디 물었습니다.

“썩은 물이고 하면 풀도 죽겠네.”

“그렇다더구나. 뉘가 봤다는데 어떤 풀밭은 공장 폐수로 누렇게 말라죽고 그걸 모르고 뜯어먹은 소가 죽은 일이 있다고 했어. 미꾸라지라면 논이 자기 터전인데 농약이 뿌려지고 해서 그 터전을 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간 게 많다고 했어.”

‘정말 그렇다면 사람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살 곳이 못되는군.’

물방울 형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노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노루는 어디선가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

모두 의아해 하는 눈으로 노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루가 산토끼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어서 피해라. 저기 사람들이 몰려온다. 나를 잡으려고 오는 건데 너를 보면 너도 잡아가려 할 거야.”

노루가 말을 마치자마자 왈칵사람들 소리가 났습니다. 저쪽 산모퉁이 밭이 있는 곳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피해야겠다. 사람들은 우릴 보고도 잡아간다.”

열목어가 말했습니다.

물방울 형제만 남겨놓고 모두 달아났습니다.

노루와 산토끼는 사람들이 쉽게 달려가 잡을 수 없는 가파른 능선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산토끼는 가파른 길을 향해 달릴 때는 잘도 달립니다. 대신에 내리막길은 잘 달리지 못했습니다. 노루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가파른 곳은 몹시 숨을 헐떡거리고 했습니다.

물방울 형제는 사람 사는 세상에 나가 살겠다는 생각을 그만 두었습니다. 다시 웅달샘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람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맑고 깨끗한 웅달샘을 사랑하는데 네가 여길 떠나는 건 말도 안 돼.”

물방울 형제는 반성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